

김범

윤형민

역사적인 서적의 형식과 정치를 풍자하는 만담이라는 소재를 한데 엮어 <만담집(The Book of Jest)s>(2014)을 구상하게 된 특별한 배경이나 계기가 있는지요?

2013년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초대받아 빈에 석 달 동안 머무를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작업실 근처 고서점에서 발견한 책에서 시작된 작업입니다. 책 제목은 ‘알브렉트 뒤러의 가장자리 장식 드로잉, 막시밀리언 황제를 위한 기도서’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뒤러가 1515년에 막시밀리언 황제를 위해 그린 기도서의 삽화집이었어요. 가장자리 장식 드로잉이라는 게 기도문 주변을 액자처럼 장식한 삽화를 말하는데, 텍스트 없이 뒤러의 그림만 실고 있는 이 책은 빈 프레임만 남은 셈이었죠. 또 삽화 없이 본래 텍스트만 있던 페이지들은 그대로 비워놓기도 했어요. 이런 책의 구성이 독특하기도 했고, 뒤러의 펜 드로잉이 종교 삽화임에도 흔치 않게 유머스러워서 책의 배경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책의 내용과 형식에 대해 좀 더 설명해 주겠습니까?

뒤러의 기도서는 판화의 역사에서 중요한 지점에 있어요. 16세기에 만들어진 이 기도서는 19세기 초 독일에서 처음으로 리소그라피가 발명되고, 이것을 이용해 다색 출판이 시작될 당시 아레틴제네펠더라는 출판사(제네펠더는 리소그라피를 발명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에서 다시 출판되었지요. 그리고 몇 년 후 런던에 있는 다른 출판사에서든 이 리소그라피 책을 퍼냈고요. 이렇게 재탄생한 기도서는 사실 초판과 달리 38개의 언어로 이루어진 ‘오라티오 도미니카 폴리글로타(Oratio Dominica Polyglotta)’, 즉 ‘여러 언어로 된 기도문’이 됩니다. 그런데 독특한 점은 주기도문을 모두 번역해 서로 다른 언어로 된 38권의 책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한 권의 책 안에 각 장마다 다른 언어로 첫 구절을 반복한다는 거였어요. 저도 그 목적이 궁금해 좀 더 자료를 찾아보던 차에 18세기 중엽 독일의 언어학자 헨젤이 발간한 『초기 언어학 지도(Synopsis Universae Philologiae)』를 발견했어요. 네 개 대륙의 지역마다 당시 알고 있던 현지 문자를 적어놓은 지도였는데, 이때 사용한 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첫 문장이었습니다. 그 뜻은 모든 언어가 기독교 언어, 즉 히브리어에서 나왔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38가지의 언어로 된 책이라면 여러 나라의 많은 사람이 읽을 수 있었던 책이라 할 수 있겠네요. 본래 윤형민 작가도 번역 작업을 하는 것 같던데, 그렇게 많은 언어로 번역된 텍스트가 담긴 책이라는 점에도 큰 흥미를 느꼈을 것 같아요.

네, 대단한 공을 들여서 만든 특이한 책이었는데,

유럽인들이 자족하는 의미였지 외국인들이 읽기를 바랐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실제 번역도 하고 있고 번역이라는 개념이 오랫동안 제작업 활동의 기반되어 오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 자료에는 판화의 역사, 또는 출판의 역사 및 이념 전파의 관계도 포함되어 있어서 더 매력을 느꼈죠.

이번에 출품하는 <만담집>의 내용은 어떤가요?

1515년, 그리고 1800년대 초 재출판된 책의 배경 이념이 종교였다면, 저는 그것을 근현대의 이야기로 바꾸어 넣고 싶었고, 그래서 모은 것이 정치 풍자입니다. <만담집>에는 최종적으로 25개의 정치 풍자가 15개의 원어(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영국, 미국],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인도어, 스페인어[스페인, 멕시코], 아랍어[시리아, 이집트], 그리스어, 이탈리아어, 체코어, 터키어, 히브리어)로 쓰여 있습니다. 본래 삽화가 상징성을 지닐 수 있었던 것은 기도문 때문이었어 그 연결 고리가 사라진 상태라, 이것을 제가 모은 만담과 연결 지을 때에도 마구잡이로 엮은 것은 아니고, 글과 이미지 사이에 새 링크를 찾아주려고 했어요. 사진을 자세히 관찰하면 그런 부분을 찾을 수 도 있을 거예요. 또, ‘만담집’의 맨 뒤에는 영어 번역이 첨부되어 있고, 이해하는 데 필요한 것은 한두 줄 정도 주석을 덧붙이기도 했어요.

이 작품에서 풍자적 만담인 텍스트와 종교적 삽화는 대비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가요? 말씀하신 책의 본래 텍스트 또는 삽화가 종교적인 내용인데 반해, 정치적 풍자란 주로 부조리한 인간들 또는 인간 세상에 대한 단편적이고 비판적인 이야기들이어서요.

굳이 대비되는 텍스트를 찾은 건 아니었지만, 그러한 대비에 흥미를 느낀 것은 사실이에요. 또 한스 홀바인의 에칭 삽화가 들어 있는 에라스무스의 『우신예찬』이 좋은 참고 자료가 되기도 했지요. 하지만 무엇보다 뒤러의 삽화가 가진 이중적인 표현력, 즉 종교적 상징성과 알송달송한 숨은그림찾기 같은 이미지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정치 풍자 만담은 어떻게 수집했고, 그 가운데 작품에 수록한 내용은 어떤 기준으로 선택했는지요? 또, 위에서 소재가 된 종교 서적에 대해 여러 언어로 번역된 특성이나 인쇄 출판의 역사와 연관된 ‘이념의 전파’라는 관점에 비중을 두었듯이, 이 <만담집>을 감상하는 데 혹시 ‘주로 이러한 맥락에서 바라보아주면 좋겠다’ 싶은 관점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요?

정치 풍자는 지인들이나 책, 인터넷 등을 통해서 모았는데, 그 과정은 대부분 말 그대로 번역이었어요. 먼저, 가능한 여러 나라의 풍자를 모으는 과정에서는 제가 런던, 밴쿠버와 같은 문화적으로 다양한 곳에서 산 경향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주변에 물어볼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선택 과정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농담과

Beom Kim

Hyung-Min Yoon

*The Book of Jest*s (2014) has been described as a compilation of jokes that parody the historical form and politics of books. Could you tell us if there was a particular context or event that led to your conception of this book?

In 2013, I had the opportunity to stay in Vienna for a three-month residency program. This project began from a book I discovered at an antique bookstore near my studio in Vienna. The book was Albert Dürer’s *Marginal Drawings for the Prayerbook of the Emperor Maximilian I*, a book of illustrations for a prayerbook that Dürer made in 1515 for the Emperor Maximilian. Marginal drawings refer to the border illustrations that frame the pages of the prayerbook. Lacking any text, the book was like an empty frame just carrying Dürer’s drawings. Moreover, the pages with the original text were left empty without any illustrations. Both because of the unique composition of the book, as well as the humorous nature of Dürer’s pen drawings as religious artwork, I began to investigate the context of the book.

Can you tell us a bit more about the contents and form of the book?

Dürer’s prayerbook holds an important place in the history of printmaking. While this prayerbook was made in the 16th century, it was reprinted in the early 19th century when lithography was first invented in Germany by Alois Senefelder, and came to be used for making color prints. It was re-issued by Alois Senefelder’s publishing company. A few years later, it was published again by a different press in London. In this way, the prayerbook was revived in 38 languages in the *Oratio Dominica Polyglotta*, taking a form distinct from the first edition. However, what was unique was not that the *Lord’s Prayer* was translated into various languages to form 38 volumes, but rather than the passage was repeated in different languages in each page of a single volume book. As I searched more about purpose behind the book, I came across the *Synopsis Universae Philologiae*, written by the mid 18th century German linguist Gottfried Hensel. This book was a map of four continents with known scripts used in each region at the time. And it happened to use the first passage of the Lord’s Prayer. This meant that all languages were the language of the Church. Namely, it conveyed the message that all written systems were derived from Hebrew.

If the book was written in 38 languages, then it must have been accessible by people from many countries. I believe you also occasionally work on translations. Hence it must have been quite exciting to find a book that incorporated translations in so many languages.

Yes, it was a special book produced with great effort, although I think it was largely contained to European use and not expected to be read

by non-Europeans. As you mention, I do work on translations, and the concept of translation has long formed the ground of my projects. Moreover, I was especially drawn to the book because the history of printing and publishing as well as their relation to the spread of ideas were all incorporated in these materials.

Can you tell us about the content of your recently published *The Book of Jest*s (2014)?

As the original context of Dürer’s illustrations for the Prayerbook, first published in 1515 and republished in the early 1800s, was religion, the ideology of the times, I wanted to replace it with the story of our time. So I began to collect worldwide political satire. In *The Book of Jest*s, there are 25 cases of political satire written in their original 15 languages: Korean, Chinese, Japanese, English (British, American), French, German, Russian, Hindi (India), Spanish (Spain, Mexico), Arabic (Syria, Egypt), Greek, Italian, Czech, Turkish, and Hebrew. The original illustrations were able to carry symbolic meaning because of the text, the prayer, but in my book that connecting link is gone. I also did not make the connections between the original illustrations and the collection of jests in a random manner, but tried to seek out new links between text and image. If you observe the images closely, you will be able to find those details. As the jests are written in the original languages, *The Book of Jest*s includes English translation in the back of the book, as well as one to two line annotations to help understand the texts in some cases.

It looks like there is an analogy being made between texts of satirical parodies and religious drawings in this project. Is this correct? As you mention, in contrast to the religious narrative of the original text or the illustrations, the content of political satire usually consists of fragmentary and critical narratives of irrational people or society.

It’s not that I exactly searched for contrasting texts, but it is true that kind of comparison was intriguing. Moreover, *The Praise of Folly* by Erasmus, which contains the famous etchings of Hans Holbein served as an important reference. But more than anything else, it was the unique double-edged expressive power of Dürer’s pen drawings, which served as sacred symbols while displaying his artistic gestures contained humor that made it possible.

How did you collect the political parodies, and on what basis did you decide on what contents to include in your project? In addition, in the same way that you stressed the polyglot character, the printing and publishing history, and the ‘propagation of ideas’ of the religious book that served as your subject matter, if there is a particular angle or context from which you would like *The Book of Jest*s to be appreciated, what would that be?

I collected the political parodies from friends

지역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한 것을 섞으려고 했어요. 예를 들어 <만담집>에 나오는 ‘전구 교제’나 ‘소 두 마리’ 같은 농담은 우리 나라에서는 인기가 없었던 것 같지만, 굉장하 많은 시리즈가 여러 나라 말로 유행했어요. 같은 이야기인데도 어느 나라 대통령, 또는 정권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뉘앙스가 달라지는 것도 재미있고요. 반면에 간단한 배경지식을 덧붙여 지역의 정치적인 상황을 이해하게 되는 경우도 넣고 싶었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인도나 멕시코의 현대 정치 상황을 반영한 풍자를 고르기도 했습니다.

이 작품을 보면서 독자는 많은 나라의 정치적 상황을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또한 농담을 주고받는 사람들의 입장이 지닌 공통성 또는 일반성을 보게 되는데요, 이러한 다양성과 일반성에 대해 생각하는 관점은 어떤 것인지요?

흥미로운 지적이네요. 정치 풍자는 많은 경우 시대나 국적에 관계없이 이해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한 배경지식이 없더라도 전달되는 절실함, 어떤 일반성에서 나오는 감동은 예술 작품과 마찬가지로는 생각도 들었어요. 동시에, 어느 풍자든 그것 특유의 구체적인 정치사회적 상황에서 나온, 그 나라말로 된 고유한 것이기도 합니다. 번역 작업을 하면서 우스갯소리로 던지곤 한 말이었지만, 농담은 번역하면 재미가 없어요. <만담집>을 엮을 때 바로 다양성과 일반성의 공존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풍자적 만담이라는 것이 주로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인 상황, 비판적 내용을 유머를 섞어 이야기한다는 점도 흥미로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떤 대상, 혹은 어떤 처지에 빠진 자기 자신을 ‘조롱’하는 즐거움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정치적 만담’이 정치적 어려움이 있는 곳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것일까요?

<만담집>과 우연히 같은 해에 출판된 『지젝의 농담 (Zizek’s Jokes)』에서 슬라보예 지젝은, 냉전시대 동유럽에 반정권 정치 풍자를 만들어내는 비밀 경찰 부서가 있었다는 전설이 돌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정치사회적 상황에 대해 자조적인 농담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불만이 한꺼번에 폭발하지 않도록 조절하는 일종의 밸브 역할을 했다는 것이지요. 저로서는 이것도 한때 날카롭고 섬뜩한 농담이었길 바랄 뿐이고, 풍자의 역할을 불만 제거로만 보고 싶지도 않아요. 삼국시대 민중이 불렀던 참요가 예언적인 역할을 했다는 역사적 고증에서도, 이러한 이야기들이 단순히 노래나 농담 이상의 기능과 가능성을 가졌다는 믿음을 갖게 만듭니다.

<만담집>을 통해 작품을 보는 사람들에게 만담을 들려주거나 함께 만담을 나누는 의미로도 생각하는지요?

유럽 중세에 제스터(Jester)라는 궁중의 광대가 폭군에게도 유머로서 진실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다는 것이 ‘만담집’을 만들 때 큰

영감이었습니니다. 작품의 본래 영어 제목이 ‘The Book of Jests’ 인데, 제스터가 들려주는 이야기 책을 편집한다는 기본으로 제작했어요. 물론 제목은 성경에서 ‘...서(The Book of...)’라는 제목을 붙이는 것을 본받 것이기도 하고요.

책 전체의 인쇄 방식이 판화라고 하셨는데 맞나요? 책에 사용된 글꼴 등 텍스트의 편집 방식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겠습니까?

네, 이 책의 역사를 제작 과정에 꼭 반영하고 싶어서 마스터 판화와 함께 리소그라피로 제작했습니다. 한 장 한 장 공이 많이 들어간 책이지요. 활자의 역사도 책만큼 빼놓을 수 없는 흥미진진한 리서치였어요. 본래 1515년 출판한 기도서에 사용하기 위해 막시밀리안 황제의 명으로 개발된 ‘게베부흐 프락투어(Gebebuch Fraktur, ‘기도서 프락투어’라는 뜻, 프락투어는 황실에서 쓰던 공식 서체를 바탕으로 한 독일의 활자 양식)’가 마침 오늘날에도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로만 알파벳은 모두 이것을 사용했어요. 다른 문자들은 시대가 유사한 고서를 찾아 그것에 가까운 것들을 찾아 썼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의 내용을 전시 공간에서 보여주는 방식에 대해 설명해 주겠습니까?

책 자체가 일단 개인적인 오브제라 전시장이라는 공간에서 보여주는 게 힘든데, 특히 에디션이 적은 책을 만들다 보니 그대로는 제대로 된 관람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책의 각 장을 다시 사진으로 촬영하기로 했고, 인화는 본래 책 크기에 가깝게 했습니다. 그리고 책의 내용을 다 볼 수 있도록, 책을 한 장씩 넘기면서 농담의 자막이 나오는 20분가량 되는 비디오투 제작했어요. <만담집>에 대한 글을 써주었던 벤쿠버 작가 로나 브라운은 이런 방식을 두고 제가 한 권의 책을 여러 방식으로 ‘번역’했다고 표현했는데요, 이 작품이 여러 단계를 거치는 긴 과정이 막 끝났을 때,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 일종의 순환시키는 듯한 흥미로운 발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and acquaintances, books, the Internet, etc., but this process was mostly translation in the literal sense. First, my experience having lived in culturally diverse cities such as London or Vancouver was helpful in the process of gathering political parodies from various countries. This is because there were plenty of people around me to ask. In selecting the parodies, I wanted a mixture of jokes that were well known globally and those based on local knowledge. For example, jokes like “Changing the Light-bulb,” and “Two Cows” that appear in my book may have not been very popular in Korea, but many versions of these were enormously popular across different languages. On the other hand, I also wanted to include cases where local political situations could be understood by adding some basic background information. For example, I selected parodies that reflected the contemporary political landscape of India and Mexico, places where Koreans have shown relatively little interest.

Through this project, the reader becomes familiar with many stories that incorporate the political situation of many countries as their context, as well as the commonality and generality of the conditions shared by the people who exchange these jokes. What is your viewpoint on this kind of diversity and universality?

That’s an interesting point. A particular characteristic of much of political satire is its ability to be understood regardless of the time period or nationality. I thought that the poignancy that political satire communicates even if one lacks the particular background knowledge, or the emotions that come from certain universality is similar to that of artworks. At the same time, the peculiarity of all satire is that it is the native product of the concrete politico-social situation and language of that society. While working on translations, we used to joke about how translated jokes are not funny. I think an important part of putting *The Book of Jests* together was to have both diversity and universality coexist in the book.

I think the fact that satirical jokes mainly take up negative or pessimistic situations or critical narratives and treat them with humor is also an interesting point. I wonder if it is not the pleasure of making fun of whatever subject or circumstances one has fallen into. What kind of meaning or effect do you think political jokes have on those people who live amidst political hardship or crises?

*Zizek’s Jokes* was coincidentally published the same year as *The Book of Jests*. In his book, Slavoj Zizek writes about a rumor that circulated during the Cold War in Eastern Europe about how there was a secret police department for making anti-government political satire. The act of making self-ridiculing jokes toward the political-social situation acted as a kind of pressure valve that helped control the citizen’s dissatisfactions from exploding all at once. I only hope that this was once a pointed and terrifying joke,

and I do not wish to see the role of satire as only a way of eliminating people’s dissatisfactions. Also, when I consider the historical research regarding the prophetic function of the ‘Chamyó’ that was sung by the Korean people during the Three Kingdoms Period, these kinds of stories make me believe that these are not merely a song or a joke, but possess potential for further actions in the future.

Do you also mean to communicate or share these jokes with the people who view your project through *The Book of Jests*?

The fact that during the European Middle Ages, the Jester, or court entertainer, was the sole person who could tell the truth even to a despot, through the use of humor, was a big inspiration to me when I was making the book. I chose *The Book of Jests* as the original English title of the book, and I made the book in the spirit of editing a book of stories told by the Jester. Of course, I also modeled the form of using ‘The Book of...’ in the title from the bible.

I understand that you used printmaking as the printing method for the whole book. Is this correct? Can you also tell us about the font used in the book and how you edited the texts?

Yes, I wanted to reflect this book’s history in the production process so I worked with a master printmaker to produce lithographs for the book. Every page of the book required a great amount of effort. Research on the history of the font was as absorbing as the history of the book. The Gebebuch Fraktur font (meaning ‘Prayerbook Fraktur’) was developed by the order of the Emperor Maximilian for use in the printing of the book in 1515. It is a German typeface based on the official typeface, Fraktur, used by the imperial family. As it happens, the font is still in use today so I used this font for all the letters of the Roman alphabet. For other characters, I examined antique books of the same time period and used typefaces that resembled them.

And lastly, can you explain the method of displaying the book contents in the exhibition space?

Because the book is such an intimate object, it is difficult to display in an exhibition space. In particular, since I made the book in small editions, it is not an appropriate form for public viewing. So, I photographed each page of the book, making the prints similar in size to the original pages. In addition, to display the contents of the whole book, I produced a 20-minute video, which leafs through each page of the book with subtitles displaying the jokes. Referring to this exhibition method, the Vancouver writer and artist, Lorna Brown, writing on *The Book of Jests*, stated that I had ‘translated’ one book volume in multiple ways. I found it’s an interesting point, bringing the whole process in circle.